

도시 상품화 논리와  
욕망을 넘어서는  
대안 지역  
생태 공동체를  
꿈꾸며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

# 도시 상품화 논리와 욕망을 넘어서는 대안 지역 생태 공동체를 꿈꾸며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

## 현장으로! 배다리마을로!

스페이스 빔은 중앙 집중적인 문화예술구조 속에서 독자적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초 인천의 신도시이자 신중심지인 구월동에서 개관하였다. 이후 지역성·공공성을 모토로 지역의 미술 및 문화·예술 담론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시스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면서 열려진 만남과 생성적인 소통을 주도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하나로 제도화된 미술 영역 내부의 오랜 관습과 관행 및 그 이면의 또 다른 권력적 성격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찾아오며 그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틈을 내어 오다가 구체적인 삶의 공간 또는 ‘현장’으로 적극 다가서고 개입하며 예술적 역할을 찾기 시작하던 중 지난 2007년 초 인천의 원도심에 위치한 배다리마을이 이곳을 ‘지나가려는’ 산업도로 공사로 인해 갈라진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일이 생겼다.

배다리마을은 “인천 역사·문화의 모태”라고 할 정도로 유서 깊은 곳이고,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가 국가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남쪽의 송도지구와 북쪽의 청라지구를 빠르게 잇는 직선 길을 내려고 이곳을 파헤친 것이다. “속도”가 곧 “효율”이라는 당대의 지배적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상징적인 현장으로 보였다. 이로 인해 처참해진 마을 모습은 스페이스 빔을 비롯한 동시대 예술 활동을 되돌아보게 했는데, 구체적인 현실과 접목되지 못한 예술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막아 내며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스페이스 빔 공간도 이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마침 이 마을에 오래 전 가동이 중단되어 방치되다시피 했던 양조장 건물이 있었고, 임대 가능성이 확인 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거쳐 새롭게 등지를 틀게 되었다.

### 개발 이익에 눈 먼 탐욕의 도시 공간

배다리마을에 들어온 이후 주민들과 함께 산업도로 공사 반대 싸움에 본격 나섰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은 송도와 청라 지구에다가 서쪽의 영종(도)을 포함한 세 축을 삼각형으로 잇는 형태로 추진했지만 단지 세 곳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닌, 이를 거점으로 인천 전 지역을 자본의 이익 확보 극대화를 위한 투기적 장으로 재편하려는 도시상품화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총 212곳의 공공·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와 6곳의 대규모 재정비 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으로 나타났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은 후자의 하나로, 여기에는 배다리마을도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구체화 될 경우엔 전면 철거를 피할 수 없이 해당 지역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 또한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주도하는 인천시의 수장은 그 탐욕과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 듯한 구호로 이를 호도한다. 민선4기 안상수 시장은 “세계 일류 명품 도시 인천 건설”이라는 시정 브랜드 명을 내세우며 “신도시-구도심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밀어붙인다. 지난 2009년 개최한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시민들의 시선을 장밋빛 미래로 돌리며 이를 포장하고 마취시키는 사기술의 정점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구 행정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 이래 ‘도시

경쟁력'을 내세우며 저마다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축제와 예술 행사를 개최하며 관광 사업에 매진하는 양상이 벌어졌는데, 배다리마을 건너편의 중구는 1883년 개항 이후의(이미 상당 부분 철거된 후 그나마 남아 있는) 역사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그 현장을 잘 매개하고 보전하기보다는 오로지 방문객들을 끌어오기 위해 눈요기 성 짝퉁시설을 급조해 설치하거나 뒤덮는 방식을 취했다. 청국과 일본 조계지가 그렇고, 송월동 '동화마을'은 마을과 무관한 생똥맞은 이미지로 모든 골목길 담벼락과 주택을 감싸는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바깥 지역은 관심에서 제외된 채 또 다른 수많은 역사·문화·산업·생활 유산들이 사라지며 대부분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동구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뒤늦게 관광 사업으로 눈을 돌렸는데, 중구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존재하는 자산과 가치를 잘 보듬는 방향이 아니다 보니 한 쪽에서는 소중한 유산들을 파괴하고, 또 한 쪽에서는 이미 없어진 것을 억지스럽게 만들어 놓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고 재개발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멈추게 하고 다시 늘리려면 재개발만이 해답이라며 지지부진한 사업을 앞당기겠다고 목소리에 힘을 준다.

한편 이러한 일은 지자체 행정과 단체장들만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주민들 내에서도 개발 이익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는 때로 물려다니며 자신들의 주장을 강제하거나 일부 정치인과 결탁하면서 손을 뻗치는 등 노골적으로 이를 탐하는 토호 세력들도 있다.

### 당대의 지배 논리에 대한 대항과 대안 만들기를 위한 활동

결국 산업도로 반대 싸움은 그것 하나로 끝날 사안이 아니었고, 단지 도로 하나 막으면 되는 싸움이 아니었다. 도시 공간 및 운영 전반과 구성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자본주의적 '성장'과 '발전' 논리가 지닌 문제와 위험성을 인식하며 그것이 구체화된 형태로 드러나는

현장에의 개입과 대응과 더불어 대안을 찾으며 그 흐름과 분위기를 바꿔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활동은 복합적이고 다각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했다.

그렇다고 스페이스 빔이 제대로 준비된 입장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하나씩 배워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스페이스 빔이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었다. 이에 급한 부분부터 개입하고 또 다른 활동 주체들과 연대하면서 나머지 영역도 일관된 나름의 도시 비전과 방향 속에서 연계성을 찾고자 했다. (사실 스페이스 빔 외에도 이러한 상황을 맞아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 이 소식을 듣고 곳곳에서 이곳으로 이전을 해오거나, 외부에 살지만 이곳을 들락거리며 힘을 보태는 분들이 다수 있었다. 물론 오랜 기간 속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떠나기도 하고 나중에 새롭게 합류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일단 산업도로 반대 싸움에 적극 나서고, 뒤이어 불거진 재정비촉진계획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싸움에 적극 나섰다. 이는 단순히 길을 막고, 철거를 막는 것을 넘어서 앞서 거론한 ‘속도’와 ‘효율’, ‘발전’과 ‘성장’ 논리를 ‘역사’와 ‘문화’, ‘생명’과 ‘생태’, ‘공동체’의 가치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전장(?)에서의 싸움만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스페이스 빔이 입주한 양조장 공간이 지닌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이어가면서도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와 실험을 벌이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의 문턱을 낮추고 문을 더 열어 제치며 활발한 상호 소통의 공간으로 전환해야 했다. 즉 전문 예술가들과 일반 시민들로 이분화·위계화 된 관계를 넘어 수평적이면서도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도시와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예술적 재현이나 가상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에서 직접 만들어가고자 했다. 그렇다고 직업 예술가들만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남다른 사고와 태도, 감각과 시선을 특정 지역이나 마을, 장소에 투사하여 그곳이 지닌 남다른 특성을 드러내고 공유하고자 하였다.

산업도로 반대의 열기가 고조되며 합의를 이룰 때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도로 부지는 공유지 활동으로 확장시켰다. 그것은 다른 아닌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이 공간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주민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원적 질문과 답변을 찾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당연히 부지의 소유 주체는 인천시이고, 관리 주체는 동구라는 오랜 관행적 인식 속에서 “이 땅의 주인은 주민이고, 그렇게 때문에 당연히 주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그럼에도 동구의 일방적이고도 획일적인 관리 방식에 순응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주민으로서의 자율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그 보람과 즐거움을 같이 느끼며 주인 의식을 갖고자 하였고, 더불어 수많은 차량들이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키며 오가는 도로보다는 생태적으로 가꾸는 것이 보다 더 나은 지를 직접 경험케 함으로써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입장의 변화가 없는 동구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은 것은 당연했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으로 눈앞의 현안이나 배다리에만 머물 수는 없었다.

더 넓고 미래를 염두에 둔 도시 담론의 장이 필요했다. 이에 지난 2012년부터 <배다리 도시학교>를 열어 민·관·학의 협력 체계를 도모하고, 시민 역량을 높여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리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의와 현장 탐방, 도시 혁신을 위한 실험과 실습, 지역 리서치 작업 등을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인천 에코뮤지엄 플랜’ 수립과 더불어 이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나 기초자치단체인 중·동구는 모두가 자유롭게 누려야 할 공공재(커먼즈)를 자신들이 독점하거나 사유화, 상품화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상시적인 감시와 비평, 대안 제시를 위한 느슨한 연대 조직을 지난 2015년 초 발족시켰는데, 다른 아닌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Network for Urban Publicness of Incheon>다. 스페이스 빔은 이 조직의 간사 단체로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성과 민주성, 역사성에 기반한 도시 공간 및 운영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성과보다는 실패가, 기대보다는 실망이 —버거운 상황 속 희망 찾기

이렇게 스페이스 빔은 지역 내외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하며 파괴적이며 비민주적인 도시의 작동 논리와 분위기, 흐름을 바꿔보고자 나름 노력했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럽다. 우리의 지난 어두운 역사 속에서 잉태되어 계속해서 복제 및 재생산되며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요소와 존재들을 여러 모로 아쉬운 여건과 부족한 역량으로 뒤집거나 새로운 가치로 대체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배다리 산업도로는 오랜 싸움 끝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결국 지하화로 합의에 이르는 했지만 그 이면에 주민 분열 책동이 확인되며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고, 합의 이후에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또 다시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또한 주민 갈등 및 부동산 경기 하락이라는 변수 속에서 보존 운동을 강력하게 펼친 배다리마을은 결국 제척되어 철거 위기를 넘기고 주민 필요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배다리 활동가들이 그 동안 원했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뒤늦게 나타난 동구가 바람직한 마을 만들기보다는 관광지 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스텝이 꼬인 형국이다. 그 사이 배다리마을과 인접한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적지 않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결국 강행하여 최대 48층 아파트 단지가 완공된 후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으며 속도를 내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배다리마을이 섬으로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배다리마을 바깥으로도 눈을 돌려 보면, 도시 연안 내 유일하게 갯벌이 남아 있는 북성포구 십자수로 한 쪽을 악취 발생 민원을 이유로(실제로는 땅을 늘리려는) 매립하려는 것에 대하여 <북성포구 살리기 시민모임>을 만들어 지키기 운동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했다. 오랜 기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과 분진을 안겨주었던 인천 내항 1, 8부두를 소유주인 해양수산부가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온갖 투기 세력들이 달라붙어 저마다의 이권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땅 장사를 위한 주판알을 튕기고 있어 <인천 내항 1, 8부두와 주변지역 공공재생 시민행동>을 만들어 대응해 왔으나 새로 바뀐 민선8기 인천시정부는 이곳을 매입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한다. 몇 년 전에는 일제 강점기 비누공장이었던 애경사 건물이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 속에 결국 인근 관광지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매입한 중구가 철거를 강행하면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런 일이 벌어진 몇 년 후에는 바닷가 마을 동구 만석동에서 목선 건조에 필요한 못을 만들었던 대장간 신일철공소가 동구의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당하는 일이 또 다시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동구 화수동·화평동을 묶는 재개발 사업지 내에 인천 여성 노동과 인권, 민주화 운동의 요람으로 일컬어지는 ‘도시산업 선교회’라는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범시민대책위를 꾸려 이의 보존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까지 수개월 동안 진행했음에도 재개발 조합 측이 끝내 버티는 바람에 ‘원형 이축’ 정도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27년 된 국내 최초의 애관극장이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매각될 위기를 맞아 ‘애사모’애관극장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하여 인천시로 하여금 공공 매입 및 활용을 요구했으나 지나친 신중론과 눈치보기식 태도로 앞으로의 운명은 불확실한 상태다.

이렇듯 스페이스 빔은 제도화된 예술 영역을 넘어서 지역사회 및 현장 속에서 나름의 역할을 도모하며 바림직한 도시 및 건강한 생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며 노력해 왔지만 힘이 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를 중단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모든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성하며 이를 서로 채워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더 분발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어찌 보면 이러한 국면은 이 시기, 인천, 그리고 스페이스 빔만이 아닌,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고, 또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 이를 위안 삼고 자위하면서도 안주하지 않고 버거운 상황 속 희망을 찾아나가야 할 것 같다.

## 민운기

예술의 사회적, 지역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2002년 개관한 대안문화공간 스페이스 빔을 꾸려가며 각종 전시 및 비평지 발간, 공공예술프로젝트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실천을 모색해 왔다. 현재 인천 동구 배다리마을을 거점으로 ‘열린 도시공동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여러 시민문화 예술단체 및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술 활동을 제도화된 영역에서보다는 구체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풀어내는 가운데 다양한 활동 방식과 언어를 찾아내고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